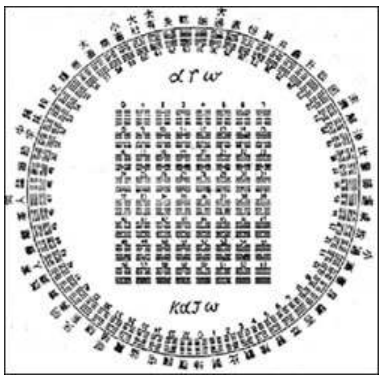
제8강 역(易)의 세계 I

(1교시)

삼경(三經)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 『시경(詩經)』, 정서(政書)를 다룬 『서경(書經)』, 그리고 점복(占卜)을 위한 원전(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역경(易經)』. 『대학(大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등의 사서(四書)와 함께 유교의 기본 경전. 『시경』은 공자가 편찬하였고, 『서경』은 하(夏) 은(殷) 주(周) 등 이른바 3대 사관(史官)의 기록을 수집한 것이라는 설이 있고 『역경(주역)』은 주(周)나라의 문왕(文王), 주공(周公), 그리고 공자 등이 편찬한 책이다.

역(易)은 세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직관을 뜻하며, 또 그 직관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한 사유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으로서의 易은 끝없이 생성하는 현상세계의 성격이다. 낳고 또 낳는 것이 역이다(生生之謂易). 易의 개념은 포괄적이어서, 각종 형태의 생성(運·動·變·化)을 모두 뜻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생성이든 易은 생성이 의미와 관련 맺는 한에서 易이다. 易은 순수 자연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에서의 변화가 문화의 장(場)으로 편입되는 한에서의 생성이다. 즉 의미를 부여받는 한에서의 생성이다. 그래서 易의 생성은 사건들의 솟아오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자연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자연으로 간주되는 한에서의 사물들에서의 사건들이 문화적 의미를 부여받는 한에서 易이 성립한다. 따라서 易은 현상세계에서 성립한다. 易은 현상세계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담론이지만, 사물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읽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현상학과 다르다.

(2교시)



易의 세계는 기(氣)의 표현이다. 기화(氣化)를 통해서 사건으로서의 易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물의 내부도 易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기화와 易이 일치한다. 물론 『역경』에서의 역은 현상적 易이다. 易으로서의 세계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인간이며, 따라서 인간은 정신(영혼, 의식, 마음)이라는 별도의 氣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은 경험으로서 易을 포착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경험을 부호화(符號化)한다. 부호화된 경험(사건들의 경험)을 '효(爻)'라 하고 계열화된 효들을 '괘(卦)'라 한다. 爻에는 양효와 음효가 있으며, 따라서 易의 사유는 경험을 음과 양 두 대대(待對) 개념으로 포착하는데 그 근본 특징이 있다. 음과 양은 실체도 성질도 사건도 아니다. 음과 양은 사건들의 계열화가 띠는 속성이다. 그것은 사건-계열의 경향성이다.

www.artnstudy.com

역에는 원래 '귀장역(歸藏易)', '역산역(連山易)'도 있었다 하나 오늘날에는 '주역(周易)'만이 전해져 내려온다. 앞의 두 권은 은(殷)의 易으로 추정된다. 『주역』은 괘상(卦象), 괘명(卦名), 괘사(卦辭), 효사(爻辭)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까지를 『易經』으로 본다.

乾 乾為天 重乾天

乾 元亨利貞
初九 潛竜 勿用
九二 見竜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九四 或躍在淵 无咎
九五 飛竜在天 利見大人
上九 亢竜有悔
用九 見羣竜无首 吉

여기에 훗날 열 가지의 주석[十翼]이 붙어 '역전(易傳)'을 이루었는데, 이는 단전(彖傳) 상하, 상전(象傳) 상하, 계사전(繫辭傳) 상하, 문언전(文言傳),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을 말한다. 때로 괘사를 단사(彖辭)로, 효사를 상사(象辭)로 부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단전, 상전, 문언전은 각 괘에 맞추어서 씌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 역경에 이 다섯 전을 붙여서 편집하며, 나머지 다섯 전은 따로 부록으로서 다룬다.

(3교시)

정현(鄭玄)의 『주역정의(周易正義)』에 따르면, 易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다.

1) 이간(易簡)은 간명함을 뜻한다. 천지의 모든 현상들이 음양 두 爻의 조화이기에 易은 간명하다. "건이이지 곤이간능 이칙이지 간칙이종(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계사」 상) 「계사」 하에서는 건(乾)은 확연(確然)해 쉽고[易], 곤(坤)은 퇴연(隤然)해 간명하다[簡]고 한다.

2) 변역(變易)은 끝없는 생성을 뜻하지만,

3) 동시에 불역(不易)은 변하지 않음을 뜻한다. 물은 늘 흐르지만 그 흐름의 이법(理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늘 태어나고 죽지만 인간의 인간-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역이자 불역이다. 易은 모순 가운데 통일이 있고, 복잡함 가운데 조화가 있음을 믿는 사상으로서 분석적 사유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易'을 '이'로 읽을 것인가, '역'으로

www.artnstudy.com

읽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니와, 흔히 정자(鄭子)의 『역전(易傳』과 주자(朱子)의 『본의(本義)』에 따라 '역'으로 읽는다.

'易'이라는 자형(字形)의 유래에 대해서는 일월설(日月說)과 척역설(蜴易說)이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 및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 등장하는 일월설은 그러나 '易'의 아랫부분(勿)이 월(月)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척(蜴)은 도마뱀으로, 늘 색깔이 변한다는 사실로부터 변화-易을 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단옥재(段玉裁)의 『설문해자주』에 따르면, 이 설이 맞다고 한다.
어떤 이는 척(蜴)이 하등 동물이어서 易의 기원일 리가 없다고 하나 자의적인 생각이다. 易의 기원이 척에 있다는 것은 보다 깊은 뜻을 함축한다. 팔괘(八卦)는 복희(伏羲)가 그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에는 '앙관부찰설(仰觀俯察說)', '하도설(河圖說)', '시초설(蓍草說)'이 있다.
복희가 신화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설은 하나의 추측일 뿐이지만, 넓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샤머니즘은 무격(巫覡)에 의해 주도되었다. 『좌전(左傳)』이나 『사기(史記)』에 나오는 '환룡씨(豢龍氏)', '어룡씨(御龍氏)', '축룡씨(畜龍氏)' 등이 바로 이들로 추측된다. 이들은 바로 우신룡(雨神龍)을 통어하는 무축(巫祝), 하늘의 정령을 통어하는 우사(雨師)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파충류, 비, 농사, 주술이라는 네 가지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용은 파충류이다. 그런데 파충류는 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리고 비는 또한 농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었던 전통 사회에서 비는 핵심적인 자연현상이었고, 그것이 파충류와 연관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환룡씨, 어룡씨, 축룡씨는 바로 파충류들(蛇, 蜥蜴, 蝎虎, 守宮, 蝘蜓 등)을 길러서 비를 예측했던 샤먼들이었을 것이다. 제자백가가 등장하기 이전에 담론을 지배했던 것은 무(巫)와 사(史)였다. 巫는 자연현상, 특히 비를 관장했던 샤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易이 척(蜴)에 연관되는지가 분명해진다. 복희는 '사신인수(蛇身人首)'의 존재였다고 하고 또 '용사(龍師)'로 불렸다고 한다. 복희는 파충류를 통해서 비를 예측했던 'Rain Maker=雨司'(프레이저)였던 것이다. 하도설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殷)이 주로 거북이를 가지고서 복점(卜占)을 쳤다면, 주(周)에 이르러 점차 점서(占筮) 사용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례춘관(周禮春官)』에 보이는 대복(大卜), 점인(占人), 복사(卜師), 구인(龜人), 서인(筮人), 사무(司巫) 같은 말들, 그리고 『史記』「구책열전(龜策列傳)」 등에 나타나는 "고대의 오제삼왕(五帝三王)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구(蓍龜)로 결정했다"는 구절 등에서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www.artnstudy.com